

새누리 “국회의장 우리가” 몽니...더민주 “자유투표 선출” 압박

20대 국회 원구성 전통

제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국회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원(院) 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국정 공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임시국회를 소집,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9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정진석·우상호·박지열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 기한을 준수하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실무진의 협상이 힘겨투기만 반복하면서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지난 31일 비공개로 만나 국회의장 및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직을 야당이 가져가면 운영·법사·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과, 이들 3개 핵심 상임위원장 중 1개는 야당에 달라는 더민주·국민의당의 요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의 복잡한 방정식을 풀지 못해 20대 국회의 개원이 늦어질수록 국정의 공백기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입법·재정·국정·외교 분야에서 다양한 기능을 행사하는데, 이 기능이 멈춰서는 것이다.

3당 체제의 ‘협치(協治)’를 통해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는 다짐이 무색한 상황이다.

이처럼 원 구성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자 더불어

여야 실무진 협상 입장차 난항

운영·법사·예산 상임위원장 쟁점

국민의당 캐스팅보트 첫 시험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정기한인 다음달 7일 국회의장 선출을 자유투표로 하자”고 합의하며 압박에 나섰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완주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자주 국회의장을 달라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 선출을) 자유투표로 해버리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 구성 시한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새누리당이 탈당한 의원들을 복당시켜 1당을 만들어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등 자주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조정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의석수 차가 1석에 불과한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국민의당 결정에 따라 협상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급격히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도 원 구성 협상을 자렛대 삼아 캐스팅보트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협상을 주도하는 선도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원 구성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자 더불어



野大국회 3당 첫 공조 합의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왼쪽),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세월호 특별법, 어버이연합, 범조비리 등에 대해 청문회 공조를 하기로 했으며 합의서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野3당 가습기·세월호 등 5대 현안 공동대응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정운호 게이트·백남기씨 사건 등 청문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은 지난 31일 20대 국회 원 구성 직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과 가습기 살균제 특위 구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더민주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차 회동을 갖고 5대 주요 현안에 대해 공조하기로 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3당은 우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는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에 별도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3당은 전경련의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에 대한 지연 의혹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해당 상임위원 정부위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네이버 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씨의 구명 로비 의혹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

명하고, 고질적인 전관예우와 범조비리 사건의 근절을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실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 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안전행정부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야당들의 이 같은 합의는 여소야대 구도인 20대 국회에서 3당 공조를 통해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 여당을 압박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수석은 기자회견 이후 “이런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20대 원 구성을 기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도 “민생 현안과 국민적 의심을 해소해야 하는 이슈들에 대한 야당 공조가 시작된 출발점이란 데 의미가 있고 주요 현안을 수시로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난 31일 오전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린 ‘제2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왼쪽)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해수부장관 등 2000여명 참석

순천만국가정원서 바다의 날 기념식

제21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지난 31일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바다의 날은 바다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199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그동안 인천, 부산 등 대규모 항구도시 위주로 개최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순천만연안인 바다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새롭게 조명받기 위해 순천에서 열리게 됐다. ‘바다를 품다, 미래를 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김영석 해수부장관, 이낙연 전남지사, 조중훈 순천시장,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해양수산 관계자와 순천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해군의장대 시범 공연 등 식전행사로 시작한 기

념식은 해양수산 미래비전 영상 상영, 대통령 축하 메시지, 해양수산 20년 축하 릴레이 영상, 유공자 포상, 국무총리 기념사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바다의 날 기념과 순천만 홍보 차원에서 일반 관광객에게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 입장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또 해양수산 통합행정 20년을 맞아 특별행사를 마련, 그동안 해양수산부의 발자취와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회도 열렸다.

한편 우리나라 최고의 생태관광지원으로 인정받은 순천만습지는 지난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정원과 더불어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대표이사 최금환

일본여행 이번이 기회다 !!!

카메라로 떠나는 일본 후쿠오카, 기타큐슈, 야마구치

- ▶ [한정특가/선착순 8명] 가족과 함께 떠나는 고급 별장 온천여행 4일 ₩299,000~
- ▶ [품격] 야마구치 전통로칸 온천 여행 4일 ₩539,000~
- ▶ [실속] 기타큐슈 온천여행 + 후쿠오카 1급 4일 ₩499,000~
- ▶ [부관철회/특가] 북큐슈 미야지마, 이와쿠니 3박4일 ₩399,000~

항공으로 떠나는 기타큐슈, 후쿠오카 **팬스타로 떠나는 오사카, 나라, 교토**

- ▶ [특가] 에어부산으로 떠나는 기타큐슈 2박 3일 ₩599,000~
- ▶ [팬스타] 오사카, 나라, 교토 4박 5일 ₩599,000~

포함: 왕복 선박항공, 유류세, 부두세&공항세, 일일표상의 관광지 입장료, 식사, 가이드비 불포함: 여권 및 개인경비, 싱글차지, 광주-부산 국내 수송비

2016년 무안출발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 여행!! 출발일 7/28, 8/1, 8/6, 8/11

울란바토르, 테를지	3박5일 ₩1,499,000	출발일: 7/28, 8/11	트래킹	3박5일 ₩1,499,000	출발일: 7/28, 8/11
	4박6일 ₩1,649,000	출발일: 8/1		4박6일 ₩1,599,000	출발일: 8/1
	4박6일 ₩1,599,000	출발일: 8/6		4박6일 ₩1,549,000	출발일: 8/6

불포함: 싱글차지, 호텔(2인실)/케르(4인실)기준,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발맞사지 봉사료

민족의 영산 백두산!!

무안공항 - 연길 / 백두산 전세기 [FM-상해항공]

- ▶ 출발일 7/13 ~ 8/24(수, 토 출발)
- ▶ 북파·웅정·도문 4일 [실속] ₩1,140,000~ [품격] ₩1,250,000~
- ▶ 북파·서파(천지2회) 4일 [실속] ₩1,250,000~ [품격] ₩1,340,000~
- ▶ 북파·서파·웅정·도문 5일 [실속] ₩1,290,000~ [품격] ₩1,390,000~

불포함: 싱글차지, 개인경비 및 공항수송비

무안공항 - 연길 / 백두산 전세기 [TW-티웨이항공]

- ▶ 출발일 7/20~8/27(수, 토 출발)
- ▶ 북파·웅정·도문 4일 [실속] ₩1,040,000~ [품격] ₩1,140,000~
- ▶ 북파·서파(천지2회) 4일 [실속] ₩1,150,000~ [품격] ₩1,240,000~
- ▶ 북파·서파·웅정·도문 5일 [실속] ₩1,190,000~ [품격] ₩1,290,000~

불포함: 싱글차지, 개인경비 및 공항수송비

무안 ↔ 북해도(삿포로) 전세기 취항

- ▶ 출발일 7/31, 8/4, 8/8, 8/12
- ▶ 노보리베츠, 도야, 사코탄, 오타루, 삿포로 5일 ₩1,599,000~
- ※ 삿포로 1일 자유일정
- ▶ 노보리베츠, 도야, 사코탄, 오타루, 삿포로, 후라노, 비에이 5일 ₩1,699,000~
- ※ 3대 게요리 포함
- ▶ 노보리베츠, 도야, 오타루, 삿포로, 하코다테, 후라노 5일 ₩1,799,000~
- ※ 3대 게요리 포함

불포함: 개인경비, 기타매너팁, 기사&가이드 경비(₩4,000)/인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 ▶ 북경, 만리장성 4일 ₩650,000~ ※화요일 출발
- ▶ 북경, 고북수진 4일 ₩750,000~ ※화요일 출발
- ▶ 면산, 태항대협곡 5일 ₩1,150,000~ ※금요일 출발

불포함: 개인경비, 매너팁, 선택관광

인천에서 떠나는 중국의 숨은보석 산동성!!

- ▶ 산동성(치박, 제산, 제남) 4일 ₩699,000~
- 특전: 광주-인천 왕복 수송 포함!!

불포함: 개인경비, 매너팁, 선택관광, 광주-인천 이동 중 식사

- ▶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99,000~
- 불포함: 기사&가이드팁(₩10,000), 현지직불관광, 석식2회
- ▶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89,000~
- 불포함: 기사&가이드팁(₩10,000), 현지직불관광, 석식2회
- ▶ 광주-울릉도 3일 ₩345,000~
- ▶ 목포-홍도, 흑산도 2일 ₩155,000~

직원 및 일본어 가이드 모집

- 모집인원 0명
- 외국어구사 능력자 우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운전면허 소지자
- 홈페이지 관리 유경험자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이렇다한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공동조각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용:여행, 국내상용:5인만),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전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 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계약서 체결 ▶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호텔, 식사, 가이드, 버스,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용에 따라 다름